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물과 중수 기록 분석

유근자(국립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차례

- I. 머리말
- II.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물 수구다라니
- III.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중수 기록 분석
- IV. 맺음말

I. 머리말

오대산 중대 사자암은 태조 이성계의 원찰로 잘 알려져 있으며 권근이 지은 「오대산 사자암 중창기(五臺山獅子庵重創記)」가 전한다. 태조 이성계는 1401년에 판내시부사 이득분(李得芬)을 시켜 권근(權近, 1352~1409)으로 하여금 「오대산 사자암 중창기」를 짓게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사자암은 “대(臺)의 남쪽에 위치했는데 대[중대]에 오르내리는 이는 모두 거쳐가는 곳이고, 창건한 지 오래되어서 터만 남아 있으니…내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공장(工匠)을 보내 중건하였다. 위에 3칸은 부처를 봉안하고 승방으로 쓰기 위한 것이요 아래 두 칸은 문과 목욕간으로 만들었다…공사를 마친 다음 그해 겨울 11월에 친림해 낙성했는데 세상을 먼저 떠난 이의 명복을 추념(追念)하고, 후세에까지 이로움이 미치게 하여, 남과 내가 부처의 은덕에 져고, 유명(幽冥)이 함께 의지하기 위함이니…”¹⁾라는 내용을 통해 사자암 중창의

과정과 목적을 유추할 수 있다.

적멸보궁이 있는 중대의 남쪽에 위치한 사자암은 조선 전기부터 중대에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거쳐가는 길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자암은 왕실에서 내려보낸 장인에 의해 증진된 점이 주목된다. 가람 배치는 상하로 이루어졌는데 불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거주하는 3칸의 인법당은 위쪽에, 문과 목욕간은 아래쪽에 위치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3칸의 건물을 지은 후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다. 중대 사자암 향각(香閣)에는 「오대산 중대 사자암 증창기」의 기록에 부합하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모셔졌다. 이 불상은 현재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겨 보관 중이다.

조선시대 왕실 원당으로서의 사자암의 성격과 사자암에 봉안되었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제작 시기 및 양식 특징에 대해서는 2022년과 2023년 학술대회 후 논문으로 발표되었다.²⁾ 이에 본 발표에서는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으로 납입되었던 ‘수구다라니(隨求陀羅尼)’가 오대산 신앙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불복장으로 납입된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또한 조성 당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1894년과 1908년의 중수 기록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물 수구다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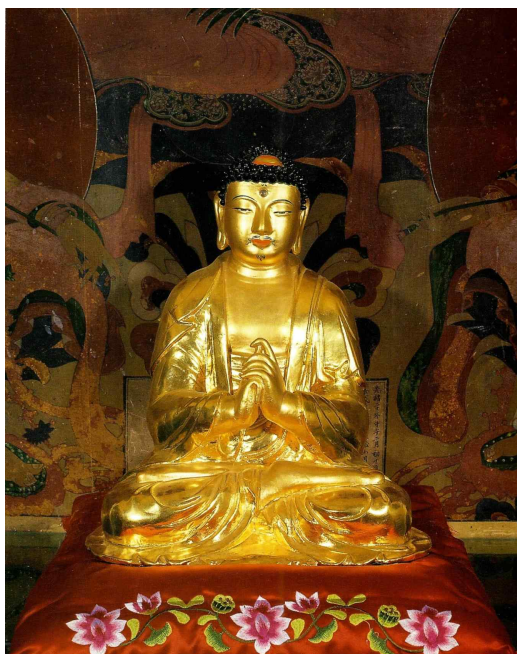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향각(香閣)에 봉안되어 오다가 현재는 월정사성보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향각은 사찰에서 향을 피워 부처님께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향각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는가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정조 때 서향각(西香閣)에서 모사한 선왕과 왕의 어진(御眞)을 상초(上綯)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

1) 權近, 『陽村集』 「五臺山獅子庵重創記」. “據臺之陽 上下是臺者所共由歷 創久而廢 遺基尚存…予聞而悅 遣工新構 上起三楹 所以安佛寓僧也 功既告訖 冬十有一月 親臨觀之 以落其成 蓋爲追福先逝 推利後世 物我均霑 幽明共賴云爾”.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2) 탁효정(2022), 「조선시대 오대산의 왕실불교와 원당의 운영」, 『불교문예연구』 20, pp.201~233; 강삼혜(2023),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문화사학』 60, pp.141~184.

3) 정조 때는 규장각에 서향각(西香閣)을 설치하고 숙종, 영조, 정조의 어진을 봉안한 기록이 있다. 『신역 조선왕조실록』 정조 15년(1791) 9월 28일 기록. “御書香閣, 圖寫御眞上綯. 奎章閣啓言: ‘謹稽先朝甲午一本冠帶, 辛丑一本冠帶; 癸丑二本, 一本袞服, 一本冠; 甲子三本, 二本冕服, 一本袞服. 癸酉後五年丁丑二本, 一本絲笠道袍, 一本冠. 癸未一本遠遊冠, 癸巳二本袞服. 當宁辛丑御眞服色, 用袞服. 今番則以何年例舉行乎?’ 教曰: ‘先朝寶齡五十歲御眞, 始具冕服. 予則今年姑未及先朝冕服之歲, 用絳紗袍.’ 上謂入

중대 사자암은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바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전의 주불상이었고, 후불도는 1894년에 새로 제작된 것이다. 향각에 봉안된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1894년 중수 때 조성한 후불도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다(도 1).



도 1.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봉안 상태, 2002년. 출처 :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도 2. 적멸보궁 마애탑비
조선 초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에서는 불인(佛印)·부적(符籍)·조성 간기(刊記)이 함께 수록된 ‘隨求一字功德極神又集靈呪(수구일자공덕극신우집영주)’ 1점, 중수 원문(1894년), 개금 발원문(1908년) 등이 수습되었다. 이 가운데 불인과 부적이 함께 수록된 수구다라니는 오대산 신앙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수습된 불인·부적이 함께 수록된 ‘수구다라니 만다라’라고 일컬어지기도 한 이 자료는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조천장보살좌상(1665년)에서 수습된 복장 자료에서는 ‘수구즉득성불도(隨求即得成佛圖)’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에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는 조선시대 불복장 연구와 오대산 수구다라니 신앙을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를

瞻諸臣曰：‘不設都監，蓋出於不欲張大之意，而更思之，後來亦當有此等事。予今不重其事，則後來之人，將無以取則，故稍尊事面，聊以示法於來後矣。’

제공한다.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상원사 목조제석천상(1466년 제작 추정), 상원사 영산전 소조제석천상과 소조나한상에서는 복장으로 '수구즉득성불도'와 '수구다라니'가 납입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보천스님은 오대산 신성굴에서 수구다라니 수행을 했고, 이를 도리천의 천신들이 들었다는 에피소드가 전한다.⁴⁾ 또한 석가여래의 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에는 탑묘 앞에는 앞뒤면에 탑인(塔印)과 불인(佛印)을 새긴 조선 전기의 탑비가 건립되어 있다(도 2).

오대산은 문수신앙처이면서 나한신앙 및 제석천 신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⁵⁾ 강원도 소재 조선 전기 불상에서 수구즉득성불도와 수구다라니가 수습되고 있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강릉 보현사 영산전 소조석가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삼척 천은사 소조아미타삼존상에서는 조성 시기가 다른 수구즉득성불도와 수구다라니가 수습되었다. 조선 전기 불상에서 수구즉득성불도와 수구다라니가 수습된 것은 불복장의 가장 중요한 납입 품 가운데 하나로 수구다라니 신앙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본 발표에서는 수구다라니 신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불복장으로 납입된 수구즉득성불도와 수구다라니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수구다라니(隨求陀羅尼) 신앙과 수구즉득성불도(隨求即得成佛圖)와 성불수구다라니(成佛隨求陀羅尼)⁶⁾

불교에서 진언은 브라만교의 성전인 리그베다에서 신들에 대한 찬가들로 구성된 산스크리트어 만트라(Mantra)의 의역으로, 밀교에서 불보살이나 불법을 상징하고, 부처의 지혜를 응축한 주문이자 복을 가져다주는 주법(呪法)으로 이해되었다. 다라니는 신주(神呪) 또는 진언(眞言) 등으로 번역되는데 만다라와 명주(明呪)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라니는 정신 통일과 지속, 불법이나 경전을 기억하고, 그 상태에서 생기는 부처의 지혜, 불지(佛智)에 의하여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제액초복(除災招福)의 주문(呪句), 성불을 위한 주문(呪句) 등으로 표현된다.⁷⁾

4) 유근자(2021),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 『선문화연구』 30, 한국불교선리연구원, pp.251~304; 유근자(2022), 「오대산 상원사 제석천상의 도상과 봉안처」, 『불교문예연구』 20, 불교문예연구소, pp. 267~313.

5) 유근자(2023), 「오대산 상원사 불교조각과 문수·나한·신중신앙」, 『강원 불교문화의 성지, 오대산』, 춘천국립박물관, pp.125~137.

6) 이 부분은 발표자가 정리한 상원사 영산전 존상 보물 승격 자료집(2022년)에 실린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수구다라니(隨求陀羅尼)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불교 주문으로 7~8세기 중국에서 한역 경전을 통해 알려졌다. 수구다라니를 설한 경전 가운데 한역본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693년에 보사유(寶思惟)가 한역한 『불설수구즉득대자재다라니신주경(佛說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神呪經)』 1권이다. 둘째는 746-774년 사이에 불공(不空)이 한역한 『보편광명청정치성여의보인심무능승대명왕대수구다라니경(普遍光明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이하 『수구다라니경』으로 약칭) 2권이다. 셋째로는 불공이 한역한 『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金剛頂瑜伽最勝祕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儀軌)』(이하 『수구다라의궤』로 약칭)이다.

보사유 한역본과 불공 한역본의 『수구다라니경』의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사(書寫)·억념(憶念)·수지(受持)·대지(對持) 등을 통해 공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몸에 항상 휴대할 것을 강조했는데 특히 몸 가운데서도 목이나 팔에 걸어두기를 권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⁸⁾ 조선 초 명에 갔던 내시가 무학대사가 준 수구다라니가 새겨진 등근 고리를 몸에 지니고

있던 것⁹⁾을 통해서도 조선시대 수구다라니를 몸에 착용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때 수구다라니가 유행한 사실은 동경에 새겨진 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동경 뒷면에 ‘밝게 빛나고 창성한 하늘’이라는 내용이 새겨진 ‘煌丕昌天’명 고려시대 동경에는 항해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도 3). 즉 많은 사람을 태운 큰 배가 용, 마카라, 대어 등이 출몰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¹⁰⁾



도 3 황비창천명 동경, 고려, 지름 17.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7) 엄기표(2016), 「고분 출토 범자 진언 다라니의 현황과 의의」, 『淳昌 雲林里 農所古墳』,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p.170.

8) 옥나영(2016),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梵字軍陀羅相」의 제작 배경」, 『이화사학연구』 53, pp.150-151.

9) 『조선왕조실록』 태조 4년(1395년) 5월 11일자 기록. “或持僧自超所贈隨求梵書漆環”.

‘황비창천’명 고려 동경에 표현된 파도 속을 항해하는 배, 바다 속의 여러 수중 생물, 구름 속 용 등은 『수구다라니경』의 내용과 부합되는 도상이다. 『수구다라니경』의 내용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상인들이 우박이 내리는 거친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만나 배가 조난 당하자, 수구다라니를 베껴 써서 돛대 위에 달아놓으니 불처럼 빛나면서 큰 물고기를 태워 버리고, 이 광경을 본 해룡(海龍)이 상인들을 도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황비창천’명 동경은 『수구다라니경』 가운데 상인이 보물을 찾으러 바다로 간 이야기를 도해한 것으로, 용·마갈어 등의 수중 생물은 바다의 액난을, 황비창천 명문은 재난으로부터 구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¹¹⁾ ‘황비창천’명 동경에 표현된 배의 깃대 위에 펼쳐있는 깃발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피하기 위해 서사하여 배의 깃발 꼭대기에 두면 된다¹²⁾는 『수구다라니경』의 설화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 불상의 복장에 납입된 수구다라니 경전은 고려와 조선 전기에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려 때 조성된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는 『수구다라니경』에 의거한 다라니가 납입되었고,¹³⁾ 1485년(성종 16)에 간행된 『오대진언집』에는 『수구다라니의궤』에 따른 다라니가 납입되었다.

수구다라니 경전에서 설한 내용의 특징은 다라니의 ‘착용’을 강조하고 사후세계에서의 이익을 설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경전에서 강조한 수구다라니의 착용 방법과 설화와 부합하는 유물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분묘 및 불상 복장에서 발견되었다.¹⁴⁾ 고려시대 불상 가운데 수구다라니가 납입된 불상으로는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¹⁵⁾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¹⁶⁾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¹⁷⁾ 등이 대표적이다.¹⁸⁾

조선시대 고분 속에 범자 진언 다라니가 납입된 예로는 순창 운람리 농소고분

10) 정수희(2015), 「고려 煌丕昌天鎧鏡의 도상과 불교적 해석」, 『미술사학연구』 286, pp.59-85.
 11) 정수희(2019), 「고려시대 銅鏡과 불교문화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04-107.
 12) 옥나영, 앞의 논문, p.154.
 13) 문화재청·광주광역시(2017),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p.43.
 14) 김보민(2018), 「고려시대 隨求陀羅尼 연구-불복장 및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
 15) 옥나영(2016),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梵字軍陀羅相」의 제작 배경」, 『이화사학연구』 53, pp.147~180.
 16) 서병패(2009),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 연구」,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pp.75~90.
 17) 국립중앙박물관(20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 I, p.80.
 18) 고려시대 수구다라니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할 수 있다. 김보민(2021), 「고려시대 隨求陀羅尼의 유형과 활용 양상」, 『미술사학연구』 309, pp.5~39; 손희진(2022), 「고려시대 佛像의 腹藏 阿字圓相隨求陀羅尼 연구」, 『불교미술사학』 34, pp.99~131.

(農所古墳)을 들 수 있다. 이 고분 속에 범자 다라니가 납입된 것은 조선시대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세계관과 사후관에 기초하여 사람의 무덤 안에 다라니를 매장하는 풍습이 널리 전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범자 진언 다라니가 고분에 새겨지거나 관련 유물들이 납입된 것은 16세기대에 들어와서 여러 점 확인되고 있는 것은, 세종대를 전후한 15세기에 불전 간행 사업이 활발해지고 밀교 관련 경전이 보급되면서 범자 진언 다라니에 대한 신앙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¹⁹⁾

진언 다라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파되고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고려 후기 원과의 불교 교류는 진언 다라니가 고려 불교계에 널리 성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조선 전기는 억불숭유 정책 기조에 의해 불교계가 위축되었지만, 다수의 진언 다라니가 유통되었고, 진언 다라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도 상당수 간행되었다. 한글 창제에 따라 한글음의 표기로 범자에 대한 정확한 발음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독송과 필사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범자와 다라니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였다. 당시 간행된 대표적인 진언집으로는 『오대진언(五大眞言)』, 『진언권공(眞言勸供)』, 『진언집(眞言集)』 등을 들 수 있다.²⁰⁾

조선 전기에 불복장으로 납입된 다라니 가운데 수구다라니가 주목된다.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은 1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복장에서 ‘수구즉득성불도’(1456년)가 수습되었다. 또한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소조나한상·제석천·사자상 복장에서도 ‘수구즉득성불도’(1467년) 및 ‘성불수구다라니’가 수습되었다. 이들 존상은 모두 조선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복장에서 수구만다라와 수구다라니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오대산은 일찍부터 수구다라니와 인연이 깊다. 즉 『삼국유사』에는 보천(寶川)이 장천굴에서 ‘수구다라니’를 지송(持誦)하는 것을 엿으로 삼았다는 에피소드가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또한 상원사 목조동자문수상 복장에서 수습된 복장 경전 가운데 1485년에 간행된 『오대진언집』이 있고, 오대 진언 가운데 바로 ‘수구다라니’가 있다. 상원사 본 『오대진언집』 뒤에는 「영험약초(靈驗略抄)」가 합철되

19) 엄기표(2016), 「고분 출토 범자 진언 다라니의 현황과 의의」, 『淳昌 雲林里 農所古墳』,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pp.167~168.

20) 엄기표, 앞의 논문, p.170.

21) 『三國遺事』卷 第三 塔像諸四 「臺山五萬眞身」. “故晚年肉身飛空到流沙江外蔚玠國掌天窟停止, 誦隨求陀羅尼日夕爲課”.

어 있어 수구다라니의 영험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상원사 본 『오대진언집』(1485년)은 인수대비 한씨가 일반 민중들의 진언 송습(誦習)을 위해 범문(梵文)의 한자 대역에 정음자(正音字)로 음역을 붙여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내용은 ‘사십이수진언(四十二首眞言)’,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即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관자재보살근본다라니(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

『오대진언집』(1485년)에 합철된 「영험약초」는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即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이다. 이 가운데 수구즉득다라니의 영험과 관련된 부분은 불공이 한역한 『수구다라니의귀』와 『수구다라니경』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였는데, 주로 『수구다라니의귀』에서 대부분을 요약해 인용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수구다라니경』 하권 중 오선나성의 범시왕 사례를 발췌해서 수록하였다.²³⁾ 범시왕의 사례는 수구다라니의 독창적인 수지 방법으로 알려진 다라니를 ‘팔에 지닌다’는 방법이 활용되었다.²⁴⁾

『수구다라니경』에 의하면 “만약 잘 서사하여 목에 걸거나 팔에 거는 자가 있으면, 그는 모든 좋은 일을 달성하며, 가장 뛰어난 청정함을 얻을 것이다. 언제나 모든 천과 용왕의 옹호를 받게 되며, 또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를 기억할 것이다.”²⁵⁾고 하였다.

조선 전기에 수구다라니가 유행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태조 4년(1395)에 내시 황영기 등이 명나라에서 죄를 짓고 쫓겨온 사실이 있는데, ‘수구다라니’가 범문으로 새겨진 옷칠한 고리[漆環]를 가지고 있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수구다라니는 바로 무학대사 자초(1327-1405)가 준 것이었다.²⁶⁾ 중국에 내시로 간 황영기 등이 조선에서 가져

22) 김무봉(2011), 「『영험약초언해(靈驗略抄諺解)』연구」, 『동악어문학』 57,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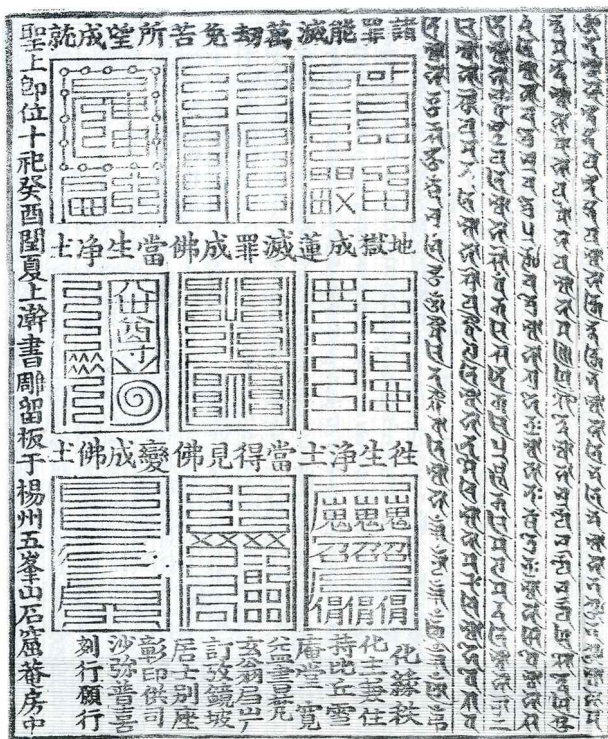
23) 옥나영(2022), 「『오대진언(五大眞言)』 간행을 통해 본 다라니 신앙의 의미 - 『영험약초(靈驗略抄)』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불교문화』 53, p.127.

24) 옥나영(2022), 앞의 논문, p.128.

25) 『佛說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神呪經』. “若能書寫帶在頸者 若在臂者 是人能成一切善事 最勝清淨常爲諸天龍王之所擁護”.

26) 『조선왕조실록』 태조 4년(1395) 5월 11일자 기록. “내시 황영기(黃永奇)·이인경(李仁敬)·신용명(申用明)·신흥기(辛興奇)·김화(金禾)·정징(鄭澄)·김희유(金希裕)·이원의(李原義)·최연(崔淵) 등 20여 명이 남경(南京)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 주상이 교서감 소감(少監) 정훈(鄭渾)에게 명하여 그들이 온 까닭을 신문하게 하였다. 신흥기·김화·정징·이원의·김희유 등은 예전에 자기 아버지를 뵈고서 돌아갔는데, 남경으로 가서 입궐할 때에 어떤 이는 소합향원(蘇合香元)을, 어떤 이

간 물품 가운데 수구다라니가 새겨진 옷칠한 등근 고리를 소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수구다라니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몸에 수구다라니를 착용하면 액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4. 『수구다라니의궤』, 1453년. 출처: 『(寫經集)수구성취다라니경』(2002), p.104.

데 다라니가 모두 범어로만 기록되었다. 마지막 면 끝에는 부적 9점과 판각을 주도한 인물을 기록한 화연질(化緣秩) 그리고 판각 연도와 봉안 장소가 판각되어 있다(도 4). 부적의 내용은 ‘제죄능멸(諸罪能滅)’, ‘만겁면고(萬劫免苦)’, ‘소망성취(所望成就)’, ‘지옥성련(地獄成蓮)’, ‘멸죄성불(滅罪成佛)’, ‘당생정토(當生淨土)’, ‘왕생정토(往生淨土)’, ‘당득견불(當得見佛)’, ‘변성불토(變成佛土)’ 등이다.²⁸⁾

오봉산 석굴암에서 1453년(단종 1)에 간행된 『수구다라니의궤』는 조선 전기에 수구다라니 신앙이 유행했음을 알려주는 또다른 자료이다. 이 판본은 당시 주지인 설암 관익(雪庵寬益)이 조성하였으며, 단종의 부왕인 문종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염원으로 경판을 석굴암에 모시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석굴암이 전소된 후 증창주 초안(超安) 선사가 수습해 현재까지 전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⁷⁾

오봉산 석굴암 판본 『수구다라니의궤』는 총 4판으로 구성되었는

는 궤내에 있는 다른 내시의 고향 본가에서 보낸 서신을, 어떤 이는 승려 자초(自超)가 준 수구다라니(隨求陀羅尼)가 범문(梵文)으로 새겨진 옷칠한 고리(漆環)를 가지고 있었다. 문지기가 이들을 수색한 뒤에 황제에게 이를 보고하니, 황제가 보고서 놀라 괴이하게 여기고는 이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명하였다. 주상이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김을상(金乙祥)에게 주문(奏文)을 가지고 가서 황제에게 아뢰어 황영기 등의 처분을 청하게 하였다.”

27) 월운해용 역해(2002), 『(寫經集)수구성취다라니경』, 나한, 107쪽.
 28) 불교 의식집에 표현된 부적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할 수 있다. 강대현·권기현(2018), 「불교의식집에 나타난 符籍과 그 역할」, 『동아시아불교문화』 35, 425-463쪽; 강대현(2020), 「밀교경전에 나타난 符印의 현황과 그 현실적 功能-『대정장』 ‘밀교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42, 115-148쪽.

2. 상원사 영산전 존상의 수구즉득만다라와 성불수구다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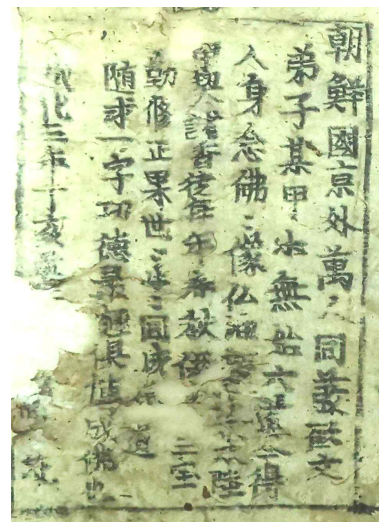
상원사 영산전 소조나한상, 제석천상, 사자상 복장에서는 ‘성불수구만다라다라니’가 수습되었다(표2 참조). 상원사 영산전 존상의 복장에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는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로 별도의 판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제11존자상에서는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가 모두 수습되었다(도 5).



도 5. 성불수구만다라(향좌)와 성불수구다라니(향우), 1467년

‘수구즉득성불도’의 상단에는 5개의 만다라가 배치되었고, 하단에는 2단으로 각각 12점씩 총 24개의 부적이 나열되었다. 하단 향좌측에는 발원문이 판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 6).

朝鮮國京外萬人同發願文
 弟子某甲亦無始六道今得
 人身念佛 像仏油○²⁹⁾○水陸
 甲契諸香徒每年春秋供養三寶
 勤修正果世 生 同成佛道
 隨求一字功德尋想(?)俱博成佛也
 成化三年丁亥○○○○○



도 6. 성불수구만다라 발원문, 1467년

발원문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467년

29) 판독 불능

(세조 13)에 판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구다라니의궤』에 등장하는 구박 바라문이 수구다라니 한 글자의 공덕으로 성불했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구박이 성불한 이야기는 『수구다라니의궤』에 자세히 전하고 있다.

옛날에 마가타국에 구박이라는 바라문이 있었다. 부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불법을 듣지도 못했다. 6바라밀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사무량심에 머무르지도 않았다. 날마다 양·곰·사슴·거위·오리·거북이 등의 고기 종류를 먹고는 (먹은 종류대로) 각각 (윤회전생을 하였는데) 하루에 50번 혹은 100번을 (축생으로 죽었다가) 태어났었다. (그렇게 하여) 250생의 수명을 겪고는 곧바로 인간계를 벗어나 염라왕궁에 도달하게 되었다. 염라왕이 제석천에게 “이 죄인은 어떤 지옥에 보내야 합니까? 죄의 경중은 어떠합니까?”라고 고하였다.

제석천은 “이 사람의 죄는 헤아릴 수가 없고 산수로도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선행의 황금기록부에 선행이라고는 한 가지도 (기록이) 없고 악행의 철기록부에는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니 속히 아버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곧 옥졸은 일처리에 몰두하였는데 이때 지옥이 갑자기 연꽃 연못으로 변하면서 팔공덕수가 가득하였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연꽃이 있었는데 청색·백색·홍색·자색으로 모든 연꽃 가운데 (가장) 수승한 색들이었다. 그 연꽃 위에는 각각 죄인들이 앉았는데 모든 고통이 없었으니, (옥졸) 마두(馬頭)와 우두(牛頭)가 염라왕에게 “이 지옥이 기이하고 이상합니다. 이 죄인이 잘못으로 왔는데, 지옥이 청정국토로 변하였고 죄인이 부처님과 닮음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이와 같이 (악행의) 일을 한 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염라왕이 제석궁에 가서 “이 구박(俱博)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아뢰었다. 마치 위에서 설한 것처럼 신통의 변화였던 것이다.

제석은 “(이 자의 행적을 보면) 두 번의 생에서도 선행이라고는 한 티끌만큼도 없었으니, 나로서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곧바로 부처님 세계에 이르러 석가모니께 “구박의 선행이 어떠한데 신통의 변화가 이와 같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제석천에게 “구박 자신은 생에서 한 가지 선행도 짓지 않았다. 오직 인간의 뼈만 보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제석천이 곧 인간계에 내려와 분향소에 가보았더니, 구박의 분향소 서쪽으로 1리쯤에 탑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 근본진언이 있었다. 낡은 탑 안에 진언이 지상으로 떨어져 그 글 가운데 한 글귀가 바람을 타고 구박의 해골 위에 붙어 있었다.

이때 제석천이 돌아왔는데 기이하고 이상하게도 여덟 지옥이 옮겨져 있었고, 각 지옥마다 (연꽃 연못으로) 이와 같아서 (죄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이때 구박과 함께 모든 죄인들이 모두 32상을 갖추었고, 80종호가 원만하였고, 일시에 (모두들) 연화대의 화장세계의 모든 불과 보살로 (변화)되었는데, 상방세계

의 무구불이 구박이었다.

(이 근본진언이) 죄를 소멸함이 이와 같은 효능이거늘 하물며 자신이 (이 근본진언을) 지님이랴! 만약 지극한 성심으로 (이 근본진언을) 지니고 염송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죄가 조금 있다 해도 허용하나니, 이 진언을 일러 “구하는 바에 따로 곧바로 얻게 되고 성불을 자재하게 하고[隨求即得成佛自在], 복덕을 구함에도 자재하고 칠보를 구함에도 자재한 것이다.”라고 한다.³⁰⁾

『수구다라니의궤』의 구박이 성불한 이야기는, 선행을 하지 않고 죽은 구박의 해골 위에 낡은 탑에서 날아온 수구다라니 한 장의 효험으로 무구불이 되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구다라니의궤』의 구박 성불 이야기가 상원사 영산전 존상에



도 7. 성불수구만다라다라니, 1494년, 원각사 소장. 출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에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에는 『수구다라니경』 보다는 『수구다라니의궤』가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에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처럼 별도로 제작된 것과 달리, 1494년 간행본은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가 한 장으로 조성되었다(도 7).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의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는 1456년에 간행된 월정사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에서 수습된 만다라 중심의 수구다라니와는 다른 형태이다. 또한 1494년(성종 25)에 한 면으로 제작된 ‘수구즉득성불도와 다라니’와 달리 별도로 성불도와 다라니를 새기고 있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에서 수습된 ‘성불수구다라니’는 ‘성불수구(成佛隨求)’ 제목 아래 원 안에 범어 다라니를 배열하고 있다. 원 안에 다라니를 배치하는 방법은 고려시대 금속 공예를 비롯해 조선시대 범종에도 계승되었다. 그런데 조선 전기 ‘수구다라니’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오봉산 석굴암 『수구다라니의궤』(1453년)와 상원사 본 『오대진언집』(1485년)처럼 범어로만 다라니를 표기한 경우와,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 복장본(1467년)처럼 원 안에 다라니를 배치하는 경

30) 불공 금강 한역, 석법성 역주(2016), 『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 운주사, 51-53쪽.

우로 구분된다.

상원사 영산전 복장본처럼 원 안에 수구다라니를 표현한 예로는 파주 금릉리 찬의(贊儀) 정온(鄭溫, 1481-1538) 묘에서 출토된 적삼과 훌치마에 찍힌 예가 있다.³¹⁾ 적삼에는 관음보살상, 다라니, 부적 등이 주사(朱砂)로 찍혀 있고(도 8), 훌치마에도 원형으로 둘러싼 범어 다라니가 24행 12자씩 먹으로 찍혀 있다(도 9). 또한 관 내부를 둘러싼 인쇄물이 있는데 여기에도 정령과 여러 부적이 나열되어 있었다고 한다.³²⁾



도 8. 정온 묘 출토 보살상, 비천성, 다라니 등이 찍힌 저고리.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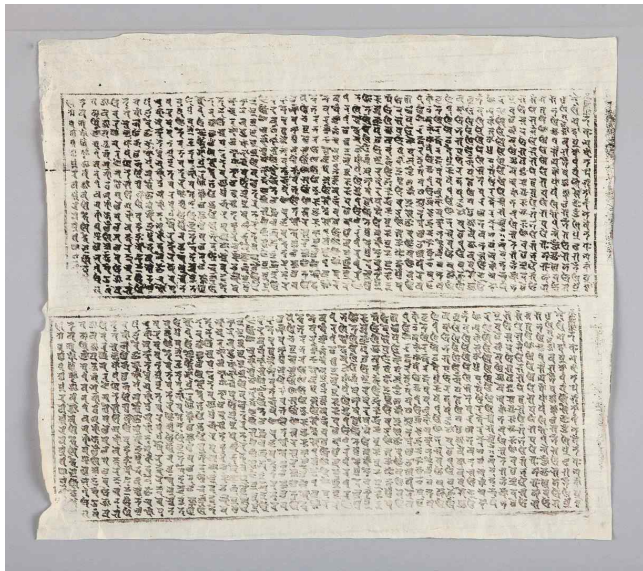
도 9. 정온 묘 출토 다라니가 찍힌 치마. 출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5년에 발굴된 증중 연간에 정5품 찬의 벼슬을 지낸 정온의 묘에서 발견된 수의에 다라니가 찍힌 것은 상원사 목조동자문수상에서 수습된 저고리에 다라니

31) 박성실(1998), 「坡州 金陵里 출토 慶州鄭氏 유물 小考」, 『한국복식』 16, 31-89쪽.

32) 박상국(1998), 「파주 금릉리 慶州 鄭氏 墳墓에서 出土된 服飾에 찍힌 陀羅尼와 佛教符籙」, 『한국복식』 16, 2-4쪽.

가 찍힌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³³⁾ 정은 묘에서 수습된 적삼과 치마 그리고 관 내부의 인쇄물은 바로 ‘수구다라니’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구다라니의 궤』에 있는 넓은 탑에서 날아온 수구다라니가 구박의 해골에 내려 앉아 구박이 성불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인들이 시신의 의복이나 관 속에 수구다라니를 인쇄해 넣어 신앙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도 10. 상원사 목조제석천상에서 수습된 성불수구다라니

상원사 목조제석천상 복장에서 도 ‘성불수구다라니’가 수습되었다. 한지 1장에 2점이 인경된 목조제석천상의 ‘성불수구다라니’는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에 납입된 것과는 다른 판본이다(도 10). 50행 19자로 판각된 목조제석천상의 수습본은 앞부분에 한자로 ‘성불수구(成佛隨求)’라고 표기한 점은 영산전 소조상에서 수습한 판본과 같다. 그러나 영산전 소조상 수구다라니 판본과 달리 원 안에 다라니를 표현하지 않은 것은 오봉산 석굴암 판본(1453년)과 같다. 상원사 목조제석천상 역시 목조동자문수상과 함께 1466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³⁴⁾되기 때문에 조선 전기 불복장으로 ‘수구다라니’가 납입된 또 다른 사례로 주목된다.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에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는 조선 전기 존상에서 수습된 출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예이며, 조선 전기 수구다라니 신앙을 고찰할 수 있는 성불도와 다라니가 함께 표현된 최초의 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불상의 복장과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

1)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수구다라니

33) 김연미(2017), 「불복장 의복 봉안의 의미 :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저고리와 전설을 중심으로」, 『미술사학』 34, p.188.

34) 유근자(2021),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 『선문화연구』 30, 251-304쪽.



도 11.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수구즉득성불도, 1456년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도 11)는 1456년(세조 2, 景泰 7)에 판각된 것으로 시주자는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의 5자인 광평대군(1425~1445)의 부인 영가부부인 신씨와 그의 아들 영순군(1444~1470)이다.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³⁵⁾ 화면 좌측에 있는 간기(刊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⁶⁾

<p>隨求一字 功德極神 又集靈呪 刊施無窮 奉持惟簡 冥資悉均 決無災難 何患沉淪 願將蜜護 聖上</p>	<p>수구다라니 한 글자라도 공덕이 지극히 신비하고 더욱이 이를 모은 영험한 주문은 간행 보시 무궁하다. 받들어 지님 간단하고 균등히 명계의 자량 되어 결정코 재난 없애리니 어찌 고해에 빠짐을</p>
---	--

35) 강삼혜(2023),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문화사학』 60, 한국문화사학회, pp.156~167.

36) 간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띄어쓰기를 했는데 강삼혜의 논문에 의하면 전체 교열과 번역은 이종수(순천대학교)가 담당했다고 한다.

<p>遐齡祥凝 四埜慶洽 朝庭 康彝之暇 咸悟無生 廣資恩有 令出火坑 景泰丙子夏 比丘 信眉 學悅 施主 永嘉府夫人申氏 永順君 阿技 李氏</p>	<p>걱정하겠는가. 원컨대 은밀히 보호하여 성상께서는 장수하시고 상서로움이 모여 사방이 경축 하며 조정에서는 평화로운 여가에 모두 무생법인을 깨달으 시며 널리 돕고 은혜를 베풀어 불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경태 병자년(1456) 여름 비구 신미 학열 시주 영가부부인 신씨, 영순군 아기 이 씨³⁷⁾</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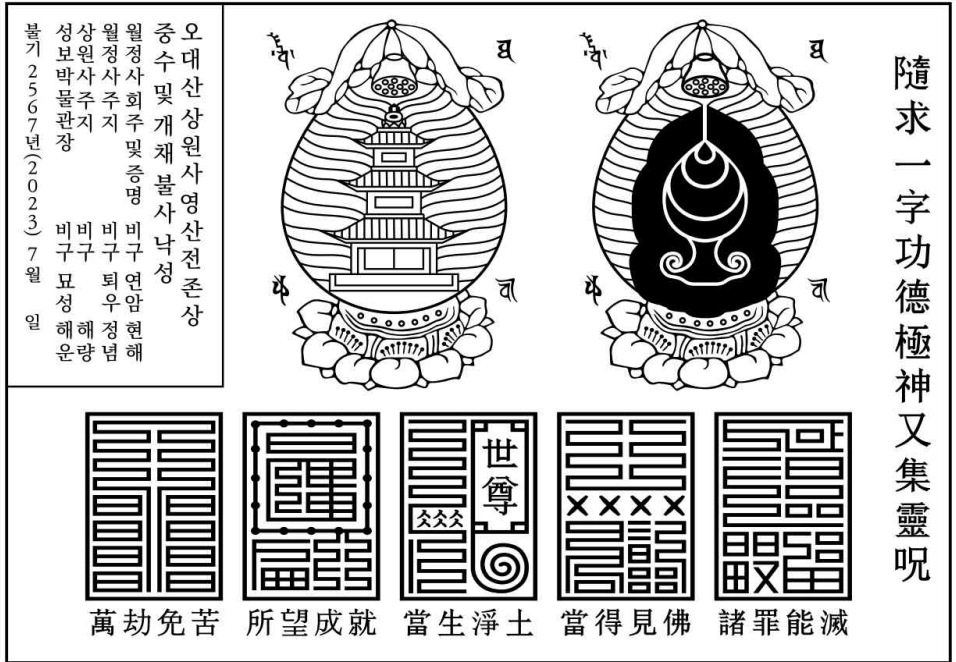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수구즉득성불도를 간행한 목적은 수구다라니의 공덕의 영험함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이때 조선 전기 세조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신미(信眉)와 학열(學悅) 스님이 동참했다. 이 두 스님은 세조가 상원사를 증창할 때 증창권선문(1464년)을 짓고 증창 불사를 주도한 승려들이다.

영가부부인 신씨는 1444년에 사망한 남편 광평대군과 그가 입후(立後)이 된 무안군과 그의 부인 왕씨(?-1449)의 극락왕생을 발원해 1456년에 견성암 약사삼존상을 조성했다. 이 때에 아들 영순군 내외와 신미 스님도 참여했다.³⁸⁾

상원사 영산전 존상을 중수한 후 복장으로는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를 참조해 새롭게 디자인한 수구즉득성불도를 판각해 납입하였다(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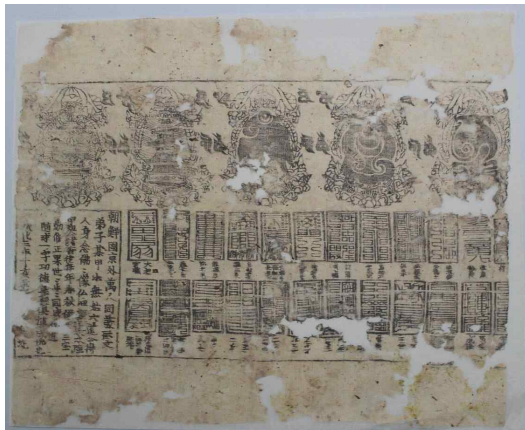
37) 강삼혜는 영가부부인 신씨, 영순군, 아기 이씨로 해석했지만 시주자는 영가부부인 신씨와 영순군이다. 아기씨는 궁중에서 어린 왕자나 왕녀·왕손을 높여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영순군을 아기 이씨로 부른 것으로 해석된다. 영순군은 1456년 7월 견성암 약사삼존상을 조성할 때 혼인한 상태였고, 부인 김제군부인 전주 최씨(1441~1493)와의 사이에 장남 남천군 이쟁(1458~1519)은 1458년에 탄생했다.

38) 유근자(2022), 『조선시대 왕실발원의 불상 연구』, 불광출판사, pp.7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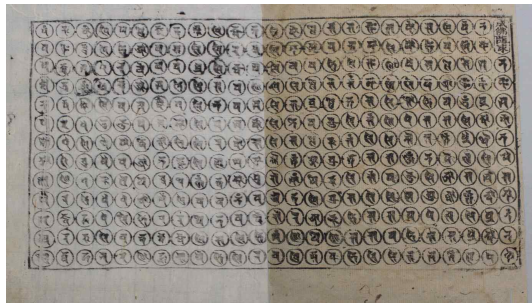


도 12. 상원사 영산전 존상 복장용, © 유근자

2) 상원사 영산전 소조제석천상·소조16나한상의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



도 13. 상원사 영산전 제11 존자상 수구즉득성불도, 1467년. (㈜서진문화유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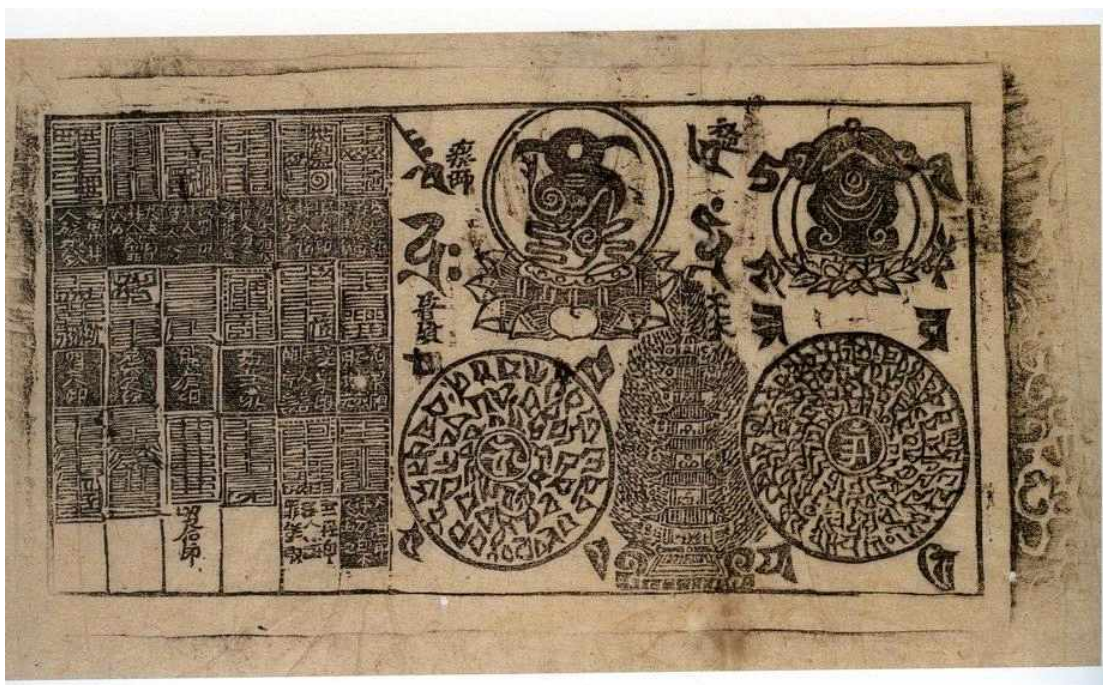


도 14. 상원사 소조나한상 성불수구다라니, 1467년. (㈜서진문화유산 제공)

상원사 영산전 소조16나한상과 소조제석천상에서는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가 수습되었다.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는 1467년(세조 13)에 판각된 것으로, 별도로 제작된 것과 한 면에 함께 인경된 두 종류로 구분된다(도). 상원사 영산전 존상은 예천 운복사에서 1886년에 이운해 온 것으로, 소조상은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고, 목조상은 1711년에 조성되었다.³⁹⁾ 이후 1886년과

1958년에 중수되었는데, 1467년에 제작된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의 납입 시기는 조성 당시인지 아니면 1886년에 상원사로 이운한 이후 인지 확실하지 않다.

3)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년) 수구즉득성불도



도 15.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수구다라니, 1485년.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도 15)는 2종의 불인(佛印)과 1종의 탑인(塔印), 2종의 만다라와 18종의 부적이 실려 있다. 이 판본은 1485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실린 부적은 1375년에 간행된 <원당암-제다라니>를 차용한 것이지만 부적의 나열된 순서는 다르다.⁴⁰⁾ 불인은 석가여래, 약사여래,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상징한다는 명문이 있다. 중앙의 탑인은 비로자나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9) 유근자(2021),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존상의 복장 기록 연구」, 『국학연구』 45, 한국국학진흥원, pp.191~229; 이분희(2023),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의 양식적 특징」, 『문화사학』 60, 한국문화사학회, pp.185~219.

40) 문상련(정각)·김연미(2023), 「조선시대 불교 부적의 연원과 전개-고려시대 전통의 계승과 변화-」, 『한국불교학』 106, 한국불교학회, pp.165~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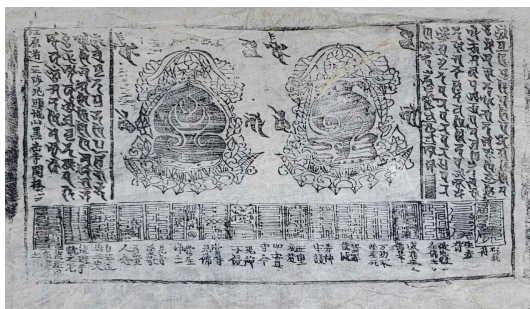
4) 강릉 보현사 영산전 소조나한상 수구즉득성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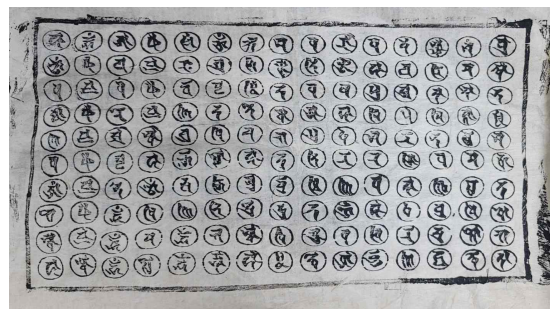
도 16. 강릉 보현사 영산전 소조나한상 수구즉득성불도, 1485년 추정. (사)서진문화유산 제공

강릉 보현사 영산전 소조나한상에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도 16)는 1458년에 조성된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수구즉득성불도와 동일본이다.

5) 삼척 천은사 소조아미타삼존좌상의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



도 17. 삼척 천은사 수구즉득성불도, 1596년 추정



도 18. 삼척 천은사 소조아미타삼존상 성불수구다라니, 1596년 추정

삼척 천은사 소조아미타삼존상은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고 1596년, 1798년, 1923년, 1983년에 개금·중수되었다.⁴¹⁾ 1596년에 중수되었는데 이때 복장을 새

41) 유근자(2023),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상의 복장 기록 분석」, 『선문화연구』 34, 한국불교선

로 납입했는데,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를 별도로 판각해 인경해서 납입하였다(도 17, 18). 천은사 소조아미타삼존상에서는 여러 점의 수구즉득성불도가 수습되었다.

구도는 좌우로 다라니를 판각하고 중앙에 배치한 불인은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불인의 배치와 같다. 부적은 하단에만 17점 배열하였다. 향좌측 끝에는 ‘江原道 三陟地 頭陀山 黑岳寺 開板’이라는 간기가 기록되었는데 1596년에 흑악사[천은사의 옛 명칭]에서 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로 판각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1596년에 작성된 중수기에는 사찰명이 흑악사로 기록되었고, 시주 목록과 시주자로 복장 시주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형 안에 수구다라니가 쓰여진 것은 상원사 영산전 소조나한상과 소조제석천상에서도 수습된 바 있다. 삼척 천은사 수구즉득성불도는 1596년에 중수 불사를 하면서 복장용으로 시주를 받아 간행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6) 상원사 목조제석천상 성불수구다라니

상원사 목조제석천상은 1466년 조성되어 1645년과 1862년에 중수되었다.⁴²⁾ 이때 수습된 복장 자료로 1장에 2매의 다라니가 찍혀 있는데 ‘成佛隨求(성불수구)’라고 한 뒤 다라니를 판각하였다(도 10).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수습된 수구즉득성불도와는 달리 성불수구다라니만을 판각하였다.

7)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 수구다라니(1660~16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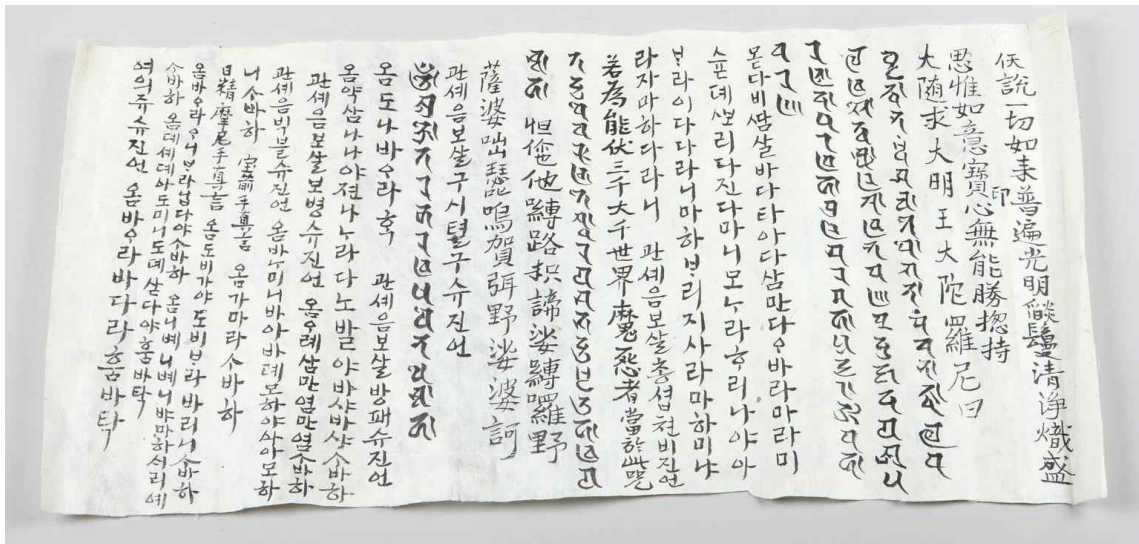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에서 수습된 다라니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수구다라니이다.⁴³⁾ 이 다라니는 환적 의천 스님께서 필사한 것으로, 관세음보살총섭 천비진언, 관세음보살구시철구수진언, 관세음보살 보병수 진언, 관세음 백불수진언 보전수 진언, 일정마니수진언, 여의주수 진언 등과 함께 필사된 것이다.

수구진언은 ‘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燄鬘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摠持大隨求大明王陀羅尼(불설일체여래보변광명염만청정치성사유여의보인심무능승총지대수구대명왕다라니)’이다(도 19).

리연구원, pp.191~244.

42) 각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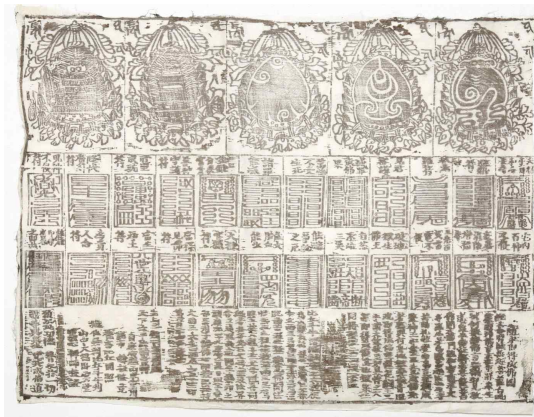
43) 유근자(2023),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1661년)의 복장 기록과 도상 분석」, 『문화사학』 60, 한국문화사학회, pp.249~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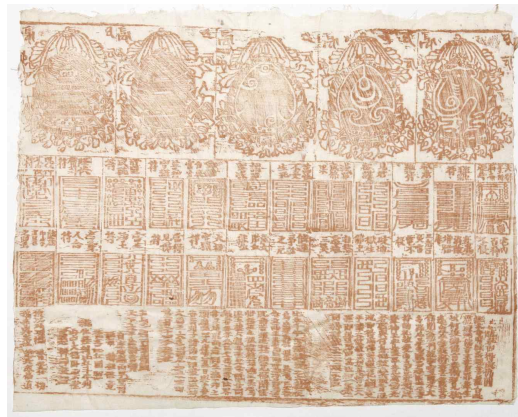
도 19.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 다리니, 1661년. 월정사성보박물관 제공

8) 송림사 명부전 석조천장보살좌상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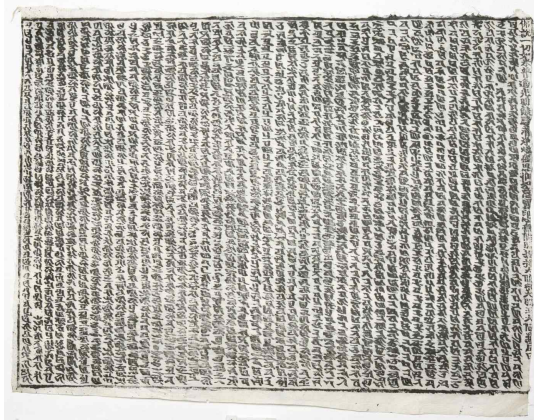
송림사 명부전 존상 가운데 석조천장보살좌상(1665년)에서는 수구즉득성불도(도 20, 21)와 성불수구다라니(도 22, 23)가 수습되었다. 불인(佛印)과 탑인(塔印) 그리고 부적이 첨부된 것은 ‘수구즉득성불도(隨求即得成佛圖)’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주목된다.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는 떡과 주서로 인경된 두 종류가 있다.



도 20. 송림사 명부전 존상 수습
〈수구즉득성불도〉,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제공



도 21. 송림사 명부전 존상 수습
〈수구즉득성불도〉,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제공



도 22. 칠곡 송림사 석조천장보살좌상
성불수구다라니,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제공



도 23. 칠곡 송림사 석조천장보살좌상
성불수구다라니,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제공

9)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서울 봉국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고성 화암사 목조약사여래좌상과 수구다라니

조선시대 불상 발원문 가운데 성불수구다라니 신앙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1748년에 왕실에서 발원한 평강 보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다. 이 존상은 현재 현재 인제 백담사, 서울 봉국사, 고성 화암사로 분산되었다. 평강 보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상은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는 두 점의 조성발



도 24. 봉국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수구다라니

원문이 수습되었고, 서울 봉국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는 조성발원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 유물이 수습되었다.

불 복장 자료 가운데 유일하게 수구다라니 수행에 관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수습된 2 점의 발원문 가운데 1점이다. 수구다라니 회향문에는 복장으로 수구다라니를 납입하고 쓴 회향문인데 발원자는 승려 영곡 영우(靈谷永愚)이다. 영곡 영우 스님은 병고의

업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범자 진언을 필사하였고, 대수구다라니(大隨求陀羅尼) 약간을 인출해 봉안했다.⁴⁴⁾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함께 조성된 서울 봉국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는 영곡 영우 스님의 다라니 회향 발원문의 내용에 부합한 대수구다라니가 수습되었다(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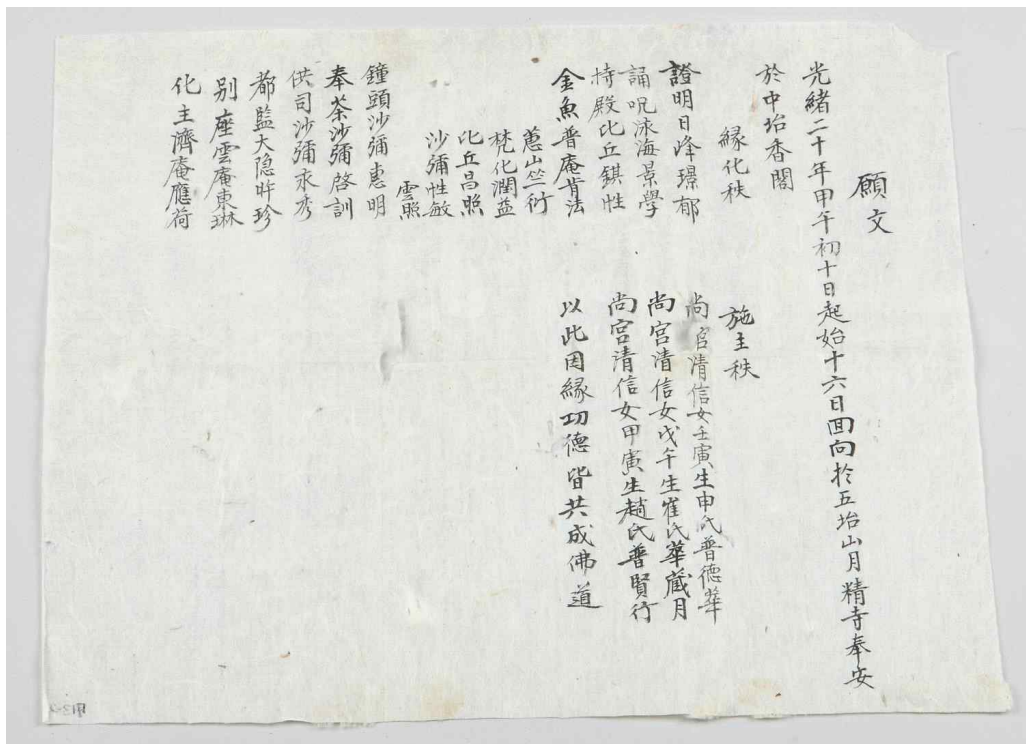
Ⅲ.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중수 원문의 내용과 분석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후 조선 후기에 중수한 기록 2점이 전한다. 1점은 1894년(고종 31, 光緒 20)이고, 1점은 1908년(순종 2, 隆熙 2)이다.

1. 중수 원문의 내용

1)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 중수 원문

1894년, 30×36.0cm(도 25)



도 25.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중수 원문, 1894년

44) 유근자(2024),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 기록 분석」, 『동국사학』 79,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pp.121~158.

願文

光緒二十年甲午初十日起始十六日回向於五埜山月精寺奉安

於中坵香閣

緣化秩

證明 日峰環郁

誦呪 泳海景學

持殿 比丘鎡性

金魚 普庵肯法

蕙山竺衍

梵化潤益

比丘昌照

沙彌性敏

雲照

鐘頭 沙彌惠明

奉茶 沙彌啓訓

供司 沙彌永秀

都監 大隱昨珍

別座 雲庵東琳

化主 濟庵應荷

施主秩

尚宮清信女壬寅生申氏普德華

尚宮清信女戊午生崔氏華藏月

尚宮清信女甲寅生趙氏普賢行

以此因緣功德皆共成佛道

2)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개금 발원문

1908년, 50.0×29.0cm(도 26)

同時改金尊像座目
 中臺獅子庵
 毘盧遮那佛 一位
 上院僧堂
 釋迦牟尼佛 一位
 上院大雄殿
 阿彌陀佛 一位 身用上
 觀世音菩薩 一位
 大寺東別堂
 觀世音菩薩 一位 此尊為主
 上院大雄殿
 身佩 座拾
 隆熙二年戊申五月十五日改金奉安

錄化所
 證明水月音觀
 錦濱印文
 熊友定歌
 晴湖學密
 應海三慧
 智光滿應
 持殿比丘龍翼
 誦呪龍峯妙根
 全魚比丘虎峯性煜
 豐谷義法
 雲潭宜荷
 寧隱法眼
 比丘道輝
 信士慈山

奉茶沙彌求隆
 信士慈山

鏡潭善真
 山中太德

鍾頭比丘文軒
 供司比丘慧眼
 淨補比丘巨去
 別供沙彌來龍
 別座比丘東日
 都監護林奉仁
 化主雲巖智果

尚宮張氏妙心花
 尚宮金氏淨德行
 尚宮鄭氏大德花
 尚宮李氏普光明
 信士韓氏增長
 信女崔氏大慧心

首僧 文軒
 三綱 摠攝松虎莊璇
 書記 滿莊

도 26.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개금발원문, 1908년

- 同時改金尊像座目
- 中臺獅子庵
- 毘盧遮那佛 一位
- 上院僧堂
- 釋迦牟尼佛 一位
- 上院大雄殿
- 阿彌陀佛 一位 身用上
- 觀世音菩薩 一位

文殊菩薩 一位

文殊童子 一位

東臺

觀世音菩薩 一位

大寺東別堂

觀世音菩薩一位 此尊為主

上院大雄殿

身侖 座坵

緣化所

證明 水月音觀

錦溟印文

樵友芝歌

晴湖學密

應海三愚

智光滿應

持殿 比丘龍翼

誦呪 聳峯妙根

金魚片手 虎峯性煜

豐谷義法

雲潭宜荷

寧隱法眼

比丘道燁

信士蕙山

奉茶 沙彌永悟

鍾頭 比丘文昨

供司 比丘慧眼

淨桶 比丘亘玄

別供 沙彌奉胤

別座 比丘東日

都監 護林奉仁

化主 雲巖智杲

山中大德

鏡潭善真

三綱 首僧 文旰
 總攝 松虎 柱璇
 書記 滿船

施主秩

尚宮張氏妙心花

尚宮金氏淨德行

尚宮鄭氏大德花

尚宮李氏普光明

信士 韓氏增長

信女崔氏大慧心

隆熙二年戊申五月十五日 改金奉安

2. 중수 원문 및 개금발원문 분석

1) 중수 원문(1894년) 분석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중수 원문은 1894년에 작성된 것인데 ‘光緒二十年甲午初’라고만 해 몇 월에 시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단지 ‘甲午初’를 통해 1894년 초로 해석된다. 불사 기간은 10일에 시작해 16일에 회향한 것을 통해 6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 봉안 장소는 중대 향각으로 명확히 표기하였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중수에 참여한 인물을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중수 원문(1894년) 분석

	분류	역할/ 시주물목/시주자	구분	
			승인(僧人)	속인(俗人)
1	연화질(緣化秩)	증명(證明)	1	
2		송주(誦呪)	1	
3		지전(持殿)	1	

	분류	역할/ 시주물목/시주자	구분	
			승인(僧人)	속인(俗人)
4		금어(金魚)	6	
5		종두(鐘頭)	1	
6		봉다(奉茶)	1	
7		공사(供司)	1	
8		도감(都監)	1	
9		별좌(別座)	1	
10		화주(化主)	1	
11	시주질(施主秩)	시주(施主)		3
		총	15	3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중수 원문의 내용은 연도, 봉안 장소, 연화질, 시주질로 구성되어 있다. 1874년에 중수할 때 참여한 인물은 승려 15명과 속인 3명으로 총 18명이다. 불사의 증명은 일봉 경욱(日峰璟郁), 송주(誦呪) 소임은 영해 경학(泳海景學), 지전(持殿) 소임은 기성(鎡性), 종두(鐘頭) 소임은 사미 혜명(沙彌惠明), 봉다(奉茶) 소임은 사미 계훈(沙彌啓訓), 공사(供司) 소임은 사미 영수(沙彌永秀), 도감(都監) 소임은 대은 오진(大隱昨珍), 별좌(別座) 소임은 운암 동림(雲庵東琳), 화주(化主) 소임은 제암 응하(濟庵應荷) 스님이 맡았다. 이 가운데 증명 일봉 경욱, 도감 대은 오진, 화주 제암 응하 스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중수에 참여한 승장(僧匠)은 화승으로 수화승 보암 긍법(普庵肯法)을 필두로 2위 혜산 축연(蕙山竺衍), 3위 범화 윤익(梵化潤益), 4위 비구 창조(比丘昌照), 5위 사미 성민(沙彌性敏), 6위 사미 운조(雲照) 등 6명이다. 이들은 이때 함께 조성된 후불도와 신중도를 함께 제작하였다.⁴⁵⁾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중수에 참여한 시주자는 모두 상궁으로 총 3명이 동참하였다. 상궁은 조선 말 왕실과 사찰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세력들이다. 시주로 참여한 상궁은 임인생(壬寅生, 1842년/ 52세) 신보덕화(申普德華), 무오생(戊午生, 1858년/ 36세) 최화장월(崔華藏月), 갑인생(甲寅生, 1854년/ 40세) 조보현행(趙普賢行) 등이다.

상궁 임인생 신보덕화는 남양주 흥국사에 봉안되었던 1883년에 제작된 신중도에는 ‘尙宮淸信女壬寅生申氏極樂華’로, 1884년에 예천 용문사 16나한상을 개재할 때도 ‘尙宮壬寅生申氏極樂花’로 표기되었는데 동일 인물이었는지는 잘 알 수

45)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진희 선생의 발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없다. 이때 많은 상공들이 참여한 것을 보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2) 개금 발원문(1908년) 분석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1908년 개금 발원문의 내용은 오대사 월정사와 상원사 등 당시 오대산 사찰의 불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개금 발원문은 세로로 긴 형태로 한지에 묵서되어 있다. 세로로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서의 명칭은 「同時改金尊像座目(동시개금존상좌목)」이다. 1908년에 중대 사자암, 상원사 승당, 상원사 대웅전, 동대 관음암, 월정사 동별당의 존상 총 8위와 상원사 문수전 불감 안에 있는 아미타불상의 대좌를 증수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증수에 관한 기록 가운데 본사와 산내 암자의 불상 증수 내역을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개금 발원문처럼 자세히 기록한 자료는 매우 드물다.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경우 증수 원문(1762년)에 영산교주 석가모니불 1위, 서방극락교주 아미타불 2위, 동방만월교주 약사여래불 1위, 약상보살 1위 등 총 5위를 개금해 전등사에 봉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⁴⁶⁾ 여기에서는 전등사 대웅전과 각 불전에 봉안한 존상을 증수한 경우로, 산내 암자의 불상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함께 1908년에 증수한 불상의 목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함께 1908년에 증수한 불상 목록

	사찰명	존상명	수량
1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	1
2	상원사 승당	석가모니불	1
3	상원사 대웅전	아미타불(대좌 위)	1
4		관세음보살	1
5		문수보살	1
6		문수동자	1
7		아미타불 대좌	1
8		동대	관세음보살
9	대사 동별당	관세음보살	1
	총		9

<표 2>에서 보다시피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함께 증수된 존상은

46) 유근자(2024),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복장 기록 분석」,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학술세미나』, 전등사·(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p.64, p.78.

총 9위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바는 상원사 대웅전에 대좌가 있는 아미타불상, 관세음보살상, 문수보살상, 문수동자상이 모셔졌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현재 관세음보살상은 아미타불상과 함께 대좌가 있는 작은 상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 하면 2002년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때 촬영된 사진에는 아미타불상처럼 대좌가 있는 27.5cm의 보살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미타불상은 바로 현재 상원사 문수전 불감 상단에 모셔진 총 29.5cm의 대좌가 있는 목조아미타불좌상이다(도 27).



도 27. 오대산 상원사 목조불좌상과 목조보살좌상, 출처 :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개금 발원문에 있는 상원사 대웅전 ‘阿彌陀佛 一位 身傭上’은 불신에 붙어있는 아미타불상 1위를 개금하였고, ‘上院大雄殿 身傭 座坵’는 아미타불상과 연결된 대좌로 해석된다. 상원사 관세음보살상과 아미타불상으로 개금 발원문에 기록된 두 존상은 현재 1위는 상원사 문수전에, 1위는 월정사 서대 염불암에 목조대세지보살좌상으로 모셔졌다가 현재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 28). 두 상은 현재는 모두 대좌까지 개금된 상태이다.



도 28. 목조불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의 현 상태

대좌와 대좌 받침이 있는 두 상은 1661년에 조성된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조성된 문수대보살, 선재·남순동자, 오대오여래(五臺五如來)과 관련된 상이라는 연구가 있다. 즉 1661년에 제작된 ‘오대오여래(五臺五如來)’는 어느 시기인가 소실되고 1750년에 원주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함께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⁴⁷⁾ 원주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복장 조사를 통해 1750년에 초흙이 조성한 것으로 오대산 진여원에 봉안했다는 조성 발원문이 발견되었다.⁴⁸⁾

이러한 자료를 통해 현재 상원사와 월정사박물관에 소장된 목조불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은 1750년 원주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함께 조성된 ‘오대오여래’로 추정된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1908년 개금 발원문은 상원사의 존상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47) 유근자(2023),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1661년)의 복장 기록과 도상 분석」, 『문화사학』 60, 한국문화사학회, pp. 276~280.

48) 최선일(2023), 「원주 대성암 소장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문화사학』 60, 한국문화사학회, pp. 291~312.

갖고 있다.

1908년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중수할 때 동참한 인물을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개금 발원문(1908년) 분석

	분류	역할/ 시주물목/시주자	구분	
			승인(僧人)	속인(俗人)
1	연화소(緣化所)	증명(證明)	6	
3		지전(持殿)	1	
2		송주(誦呪)	1	
4		금어(金魚)	6	
6		봉다(奉茶)	1	
5		종두(鍾頭)	1	
7		공사(供司)	1	
		정통(淨桶)	1	
		별공(別供)	1	
		별좌(別座)	1	
		도감(都監)	1	
		화주(化主)	1	
		산중대덕(山中大德)	1	
		수승(首僧)	1	
		총섭(總攝)	1	
	서기(書記)	1		
	시주질(施主秩)	시주(施主)		6
		총	26	6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908년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중수 발원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승인 26명과 속인 6명으로 총 32명이 동참하였다. 승려들은 소임자이고 시주자는 속인으로 상궁 4명과 남녀 2명이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개금발원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가 등장한 점이다. 즉 불사에 참여한 인물을 기록한 ‘연화소(緣化所)’인데, 이 용어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연화질(緣化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08년 중수 불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바는 증명으로 수월 음관(水月音觀), 금명 인문(錦溟印文), 초우 정혈(樵友芝歇), 청호 학밀(晴湖學密), 응해 삼우(應海三愚), 지광 만응(智光滿應) 등 6명이 동참한 것이다. 이 외에 지전(持殿) 소임은 비구 용익(比丘龍翼), 송주(誦呪) 소임은 용봉 묘근(聳峯妙根), 봉다(奉茶) 소임은 사미 영오(沙彌永悟), 종두(鍾頭) 소임은 비구 문오(比丘文旰), 공사(供司) 소임은 비구 혜근(比丘慧眼), 정통(淨桶) 소임은 비구 공현(比丘巨玄), 별공(別供) 소임은 사

미 봉운(沙彌奉胤), 별좌(別座) 소임은 비구 동일(比丘東日), 도감(都監) 소임은 호림 봉인(護林奉仁), 화주(化主) 소임은 운암 지호(雲巖智杲) 스님이 맡았다.

중수 불사에 참여한 승장(僧匠)은 화승으로 호봉 성욱(虎峯性煜)을 수화승으로, 2위 풍곡 의법(豐谷義法), 3위 운담 의하(雲潭宜荷), 4위 영은 법안(寧隱法眼), 5위 비구 도엽(比丘道燁), 6위 신사 혜산(信士蕙山) 등 6명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은 6위로 참여한 신사 혜산(信士蕙山)이다. 그는 1894년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중수할 때는 2위로 참여했는데 이때는 승려 신분 이었고, 1908년에는 환속한 상태였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중수할 때 참여한 시주자 6명 가운데 4명은 상궁이다. 1894년과 달리 시주자 상궁은 성과 범명만을 기록해 생년(生年)을 생략하였다. 상궁 시주자는 장묘심화(張妙心花), 김정덕행(金淨德行), 정대덕화(鄭大德花), 이보광명(李普光明)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물과 2점의 중수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수습된 1점의 수구즉득성불도는 1456년에 판각된 것으로 발원자는 광평대군의 부인 영가부부인 신씨와 그의 아들 영순군이였다. 이들과 함께 판각 불사를 주도한 승려는 신미와 학열로 이들은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할 때 중창 불사를 이끈 이들이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수습된 복장 수구즉득성불도는 불인과 부적이 합부된 것으로 조선시대 유행한 수구다라니 신앙을 살필 수 있게 한다. 또한 오대산은 통일신라 보천 때부터 수구다라니 신앙과 관련 깊었고, 이를 상징하듯 석가여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의 마애탑비에는 탑인과 불인이 새겨졌고 상원사 영산전 존상, 제석천상, 목조문수보살좌상(1661년)의 복장에서는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가 수습되었다. 특히 상원사 영산전 존상에서 수습된 1465년의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외에도 강원도 사찰 가운데 강릉 보현사 영산전 소조나한상에서 영주 흑석

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수구즉득성불도(1485년)와 동일 판본이 수습되었고, 삼척 천은사 소조아미타삼존상에서는 1596년 판본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수구다라니가 수습되었다.

칠곡 송림사 석조천장보살좌상에서 수습된 불인과 탑인이 있는 자료에 ‘수구즉득성불도’라는 명칭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 평강 보월사에서 1748년에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서 수습된 발원문 가운데 대수구다라니를 납입했다는 내용을 주목하였다. 평강 보월사 불상은 현재 인제 백담사, 고성 화암사, 서울 봉국사로 분산되었지만 봉국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 영곡 영우가 병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앙한 수구다라니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다라니가 수습되었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1894년과 1908년의 중수 원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시주자가 상궁들이라는 점이다. 또한 1908년 개금 발원문에는 당시 오대산의 월정사 동별당, 동대 관음암, 상원사 승당과 대웅전, 중대 사자암의 불상을 중수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상원사 대웅전에 대좌가 불상에 붙어있는 아미타불상을 중수한다는 내용을 주목했다. 이 불상은 환적 의천이 1661년에 목조문수보살좌상을 조성할 때 함께 조성한 오대오여래(五臺五如來)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1. 원전류

『佛說隨求即得大自在陁羅尼神呪經』

『三國遺事』

『陽村集』

『朝鮮王朝實錄』

『新譯 朝鮮王朝實錄』

2. 논문 및 저서

강대현·권기현(2018), 「불교의식집에 나타난 符籍과 그 역할」, 『동아시아불교문화』 35,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강대현(2020), 「밀교경전에 나타난 符印의 현황과 그 현실적 功能-『대정장』 ‘밀교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42,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강삼혜(2023),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문화사학』 60, 한국문화사학회.

국립중앙박물관(20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 I.

김무봉(2011), 「『영험약초언해(靈驗略抄諺解)』 연구」, 『동악어문학』 57, 동악어문학회.

김보민(2018), 「고려시대 隨求陀羅尼 연구-불복장 및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보민(2021), 「고려시대 隨求陀羅尼의 유형과 활용 양상」, 『미술사학연구』 309, 한국미술사학회.

김연미(2017), 「불복장 의복 봉안의 의미 :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저고리와 전설을 중심으로」, 『미술사학』 3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문상련(정각)·김연미(2023), 「조선시대 불교 부적의 연원과 전개-고려시대 전통의 계승과 변화-」, 『한국불교학』 106, 한국불교학회.

문화재청·광주광역시(2017),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 불공 금강 한역, 석법성 역주(2016), 『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 운주사.
- 박상국(1998), 「파주 금릉리 慶州 鄭氏 墳墓에서 出土된 服飾에 찍힌 陀羅尼와 佛敎符籙」, 『한국복식』 16, 한국복식학회.
- 박성실(1998), 「坡州 金陵里 출토 慶州鄭氏 유물 小考」, 『한국복식』 16, 한국복식학회.
- 서병패(2009),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 연구」,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 손희진(2022), 「고려시대 佛像의 腹藏 阿字圓相隨求陀羅尼 연구」, 『불교미술사학』 34, 불교미술사학회.
- 엄기표(2016), 「고분 출토 범자 진언 다라니의 현황과 의의」, 『淳昌 雲林里 農所古墳』,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옥나영(2016),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梵字軍陀羅相」의 제작 배경」, 『이화사학연구』 5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 옥나영(2022), 「오대진언(五大眞言) 간행을 통해 본 다라니 신앙의 의미 - 『영험약초(靈驗略抄)』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불교문화』 53,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월운해용 역해(2002), 『(寫經集)수구성취다라니경』, 나한.
- 유근자(2021),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 『선문화연구』 30,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유근자(2021), 「오대산 상원사 영산전 존상의 복장 기록 연구」, 『국학연구』 45, 한국국학진흥원.
- 유근자(2022), 「오대산 상원사 제석천상의 도상과 봉안처」, 『불교문예연구』 20, 불교문예연구소
- 유근자(2022), 『조선시대 왕실발원의 불상 연구』, 불광출판사.
- 유근자(2023), 「오대산 상원사 불교조각과 문수·나한·신중신앙」, 『강원 불교문화의 성지, 오대산』, 춘천국립박물관.
- 유근자(2023),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상의 복장 기록 분석」, 『선문화연

- 구』 34,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유근자(2023),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1661년)의 복장 기록과 도상 분석」, 『문화사학』 60, 한국문화사학회.
- 유근자(2024),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 기록 분석」, 『동국사학』 79,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유근자(2024),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복장 기록 분석」,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학술세미나』, 전등사·(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 이분희(2023), 「상원사 영산전 소조상의 양식적 특징」, 『문화사학』 60, 한국문화사학회.
- 정수희(2015), 「고려 煌丕昌天銘鏡의 도상과 불교적 해석」, 『미술사학연구』 286, 한국미술사학회.
- 정수희(2019), 「고려시대 銅鏡과 불교문화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선일(2023), 「원주 대성암 소장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문화사학』 60, 한국문화사학회.
- 탁효정(2022), 「조선시대 오대산의 왕실불교와 원당의 운영」, 『불교문예연구』 20, 불교문예연구소.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물과 중수 기록 분석」 논문

강삼혜(강원도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전 국립경주박물관 학예관)

유근자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논평자인 저도 2023년 오대산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오대산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로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상 제작과 관련한 기록과 양식을 검토하면서 복장물인 수구즉득성불도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당시 비로자나인과 불정심인으로 구성된 두 불인(佛印)을 중심으로 부적과 발원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선학의 연구(문상련, 2023, 「불인과 탑인의 한국수용과 전개-부처님 현존과 감응의 회구-」)를 빌어 발표하면서, 적멸보궁의 탑비와의 연관성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수구즉득성불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구즉득성불도의 연원은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듯합니다. 고려시대에는 불인(佛印)만 나오다가 15세기 후반경 탑인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1447년경 파계사 건칠보살좌상 범자제불상주 다라니 및 1458년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다라니) “수구즉득성불도” 명칭은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조천장보살좌상(1665)에서 수습된 복장자료에서 명칭을 가져왔는데, 탑인(塔印)이 없어도 수구즉득성불도로 통칭할 수 있는지, 수구즉득성불도의 필수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을 여쭙니다.

발표문에서는 간략하게 탑인(塔印), 불인(佛印), 부적(符籙) 등이 있는 것을 ‘수구즉득성불도(隨求即得成佛圖)’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도상을 ‘성불수구만다라’라는 용어로도 현재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으로 납입한 다라니 가운데 수구즉득성불도와 성불 수구다라니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납입된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비로자나불, 수구다라니, 제석천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경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대산 중대에는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모셨고, 보천 스님께서 수구다라니 수행을 할 때 도리천의 천주가 들었다는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천의 천주는 바로 제석천입니다. 오대산 신앙과 관련하여 발표자도 논문으로 문수신앙·나한신앙·신중신앙[제석천 신앙]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비로자나불과의 관련성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